

이순신 전승무패의 승리의 병법

임원빈(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장)

I. 서언

임진년(1592년) 초기에 조선 수군의 전투함은 50여 척이었던 반면 일본 수군은 500여 척에 달했다. 조선 수군이 1대 10 이상의 열세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에 비해 양적으로는 절대 열세였지만 전투함 1척의 질적 전투력은 일본 수군을 압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조선 수군을 이순신이 지휘했을 때는 전승무패의 승리 신화가 창출한 반면 원군이 지휘했을 때는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다. 두 리더의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는 전쟁에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해 준다. 이순신은 어떤 병법을 사용해서 임진왜란의 모든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는 어떻게 하여 질적 전투력 뿐만 아니라 양적 전투력까지도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워 모든 해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 아래에서는 이순신이 임진왜란 7년의 해전을 통해 보여준 병법 이른바 ‘전쟁 승리의 원리’를 7가지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II. 이순신 전승무패의 승리 병법

1. 병력 집중의 원리 - 통합된 세력으로 분산된 열세의 적을 공격하라

이순신이 위대한 것은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겼기 때문일까? 13척과 133척이 싸운 명량해전, 58척과 73척이 싸운 한산해전을 보면 혹시 그런 것도 같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 두 해전과 마지막 노량해전에서만 척 수 면에서 열세의 해전을 벌였지 그 이외의 모든 해전에서는 우세한 상황에서 해전을 벌였다. 이를 토대로 필자는 이순신에 대한 해석의 관점을 바꿨다. 이순신이 위대한 것은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인위적으로 우세한 상황을 조성하여 분산된 열세의 적과 싸워 이겼기 때문이다’라는 관점의 전환이 그것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하는 1592년에 이순신은 총 4차례의 출동을 감행한다. 첫 출동인 제1차 출동에서는 주력 전투함인 판옥선 28척을 포함하여 총 91척의 함선이 동원되었다. 이는 자신이 지휘하는 전라좌수영 소속 함선 전부와 경상우수영 소속의 잔여 함선 모두를 총동원한 것이었다. 최초의 승전보를 올린 옥포 해전에서 이순신은 일본 함선 30여 척과 조우하여 그 가운데 26척을 격파했으며, 합포 해전에서는 5척과 만나 5척 모두를, 적진포에서는 13척과 만나 11척을 격파했다. 즉 91척 대 30척, 91척 대 5척, 91척 대 13척이라는 절대 우세의 싸움을 한 것이다.

임진년(1592년) 제2차 출동에서는 최초 26척의 함선이 동원되어 사천해전에서 일본 함선 13척을, 당포해전에서 21척을 각각 격파하였다. 제2차 출동 세 번 째 해전인 당항포 해전 직전에는 이억기 수사가 이끄는 전라우수영의 함선들이 합세하여 총 51척의 통합 함대가 구성되었다. 조선 수군은 당항포에서 일본 함선 26척을, 울포 해전에서 7척을 각각 격파하였다. 제2차 출동 중에 있었던 4번의 해전에서도 26척 대 13척, 26척 대 21척, 51척 대 26척, 51

척 대 7척의 우세한 해전을 벌인 것이다.

임진년(1592년) 제3차 출동 중에 있었던 한산 해전의 경우 이순신 지휘하의 조선 수군은 전라좌·우수영과 경상우수영 산하의 전 함선이 총동원되어 주력 전투함인 판옥선 및 거북선의 숫자가 1차 출동에 비해 두 배 이상인 58척에 달했다. 비록 함선 숫자에서는 일본 함선 73척에 비해 열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투력 면에서는 일본 수군을 훨씬 능가했다. 해전의 결과 조선의 함선은 단 한 척의 손실도 없었던 반면 일본 함선은 대·중·소선 총 73척 가운데 59척이 격파됐고, 이 중 주력 전투함인 대선은 총 36척 중 35척이 격파됐다. 제3차 출동 중에 있었던 두 번 째 해전인 안골포 해전에서는 일본 함선 42척을 맞아 30여 척을 격파하였다.

임진년 제4차 출동에서는 개전 이후 가장 많은 함선이 동원되었다. 동원된 조선 수군의 함선은 총 180여 척이었다. 제4차 출동의 공격 목표는 일본군의 본거지인 부산포였다. 조선 수군은 부산포로 향하는 길목인 장림포에서 6척, 화준구미에서 5척, 다대포에서 8척, 서평포에서 9척, 절영도에서 2척, 초량목에서 4척을 만나 모조리 격파하였다. 그리고 부산포로 나아가니 500여 척이 포구에 정박하고 있었다. 조선 수군의 막강한 전투력에 기가 죽은 일본 함선들은 감히 바다로 나오지 못하고 육지로 올라가 저항을 했다. 조선 수군은 포구를 들락거리며 일본 함선을 공격하여 100여 척의 함선을 격파하는 전과를 올렸다.

임진년 제1차 출동에서 제4차 출동까지 동원된 양측의 함선 세력을 모두 모아 놓고 넓은 대양에서 결전(決戰)을 벌였다면 이순신은 이처럼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순신은 언제나 통합된 전투력을 운영하여 구체적인 해전 국면에서의 우세를 점유하였다. 작게는 전라좌수영 소속 함선을 통합하여 운영을 했고, 크게는 전라좌·우수영, 경상우수영, 충청 수영 등 삼도의 함대를 통합하였다. 통합된 조선의 함대와 조우한 일본 함대는 거의 대부분 분산된 상태에서 각개 격파되었다.

2. 화력집중의 원리 - 적의 지휘선이나 주력함에 화력을 집중하라

‘병력집중’이 해전 전체국면에서의 병력운영의 원리라면 ‘화력집중’은 구체적인 전투현장에서의 화력운영의 원리이다. 이순신은 해전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적의 지휘선이나 주력함에 병력과 화력을 집중하여 격파함으로써 개전 초기에 유리한 형세를 조성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병력집중을 통해 전체 전장(戰場)에서의 우세 상황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화력집중을 통해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전투현장에서까지 전투력의 우세 상황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다음은 임진년(1592년) 제2차 출동 중의 당포해전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왜선은 크기가 판옥선만한 것 9척과 중·소선 12척이 선창에 나뉘어 정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층루가 있는 한 대선 위에는 높이가 3, 4장이나 될 듯한 높은 층루가 우뚝 솟았고, 밖으로는 붉은 비단휘장을 두르고 휘장의 사면에는 ‘황자(黃字)’를 크게 써 놓았습니다. 그 속에 왜군 장수가 있는데 앞에는 붉은 일산을 세우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지라, 먼저 거북선으로 하여금 층루선 밑으로 곧 바로 충돌해 들어가면서 용(龍)의 입으로 현자철환을 치소고 또 천자, 지자총통으로 대장군전(大將軍箭)을 쏘아 그 배를 격파하게 하고 뒤따르고 있던 여러 전선들도 철환과 화살을 번갈아 쏘게 하였습니다. 중위장 권준이 돌진해 들어가 왜군 장수를 쏘아 맞추었는데, 활을 당기는 소리에 맞추어 거꾸로 떨어지므로 사도 첨사 김완과 군관 진무성이 그 왜장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적도들은 겁이나 도망치는데.....” (『李忠武公全書』, 唐浦破倭兵狀)

일본 수군 장수가 탄 지휘선은 붉은 비단휘장을 두르는 등 호화로운 장식을 하고 있어 식별하기에 매우 용이하였다. 이순신은 해전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거북선을 일본 수군의 지휘선을 향해 돌격시키면서 뱃머리의 용(龍)의 입에 설치된 현자총통으로 공격하여 기선을 잡고 이어서 현측에 설치된 천자·지자총통으로 대장군전(大將軍箭)을 발사하여 적선을 격파한다. 그 다음에는 갑판위에서 허둥대는 일본 수군 장수와 병사들을 향해 철환과 화살을 마구 쏘아댄다. 마지막으로 철환이나 화살을 맞고 바다에 떨어진 일본 장수를 건져 올려 목을 벤다. 가용한 화력을 일시에 적의 지휘선에 집중하여 전광석화처럼 격파하고 적의 장수를 사살하여 효시(梟示)하는 해전 전술은 개전초기에 일본 수군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 병사들의 사기를 꺾어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임진왜란 3대 승첩 중 하나로 꼽히는 한산해전에서 사용한 학익진(鶴翼陣)은 판옥선의 현측에 배치된 각종 총통의 화력을 선두에서 추격해 오는 일본의 함선에 집중시키기 위한 진형법이다.

“먼저 판옥선 5, 6척을 시켜 선봉으로 나온 적선을 뒤쫓아 습격할 기세를 보였더니 여러 배의 적들이 일시에 돛을 달고 쫓아 나왔습니다. 바다 가운데 나와서는 다시 여러 장수들에게 명하여 학익진(鶴翼陣)을 벌여서 일시에 진격하여 각각 지자, 현자, 승자 등의 여러 총통을 쏘아서 먼저 2, 3척을 쳐부수자, 여러 배의 왜적들이 사기가 꺾여 도망하였습니다. 여러 장수나 군사들이 이긴 기세를 뽐내어 앞을 다투어 돌진하면서 화살과 불화살을 번갈아 쏘니 그 형세가 바람과 우레 같았습니다. 일시에 적의 배를 불태우고 적을 사살하여 거의 다 없애버렸습니다.”(『李忠武公全書』, 見乃梁破倭兵狀)

이순신은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지휘하는 일본 함대를 좁은 견내량으로 부터 넓은 한산도 앞 바다로 유인하는 한편 일시에 학익진(鶴翼陣)을 벌여 선두에서 추격해오는 일본 함선 2, 3척에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순식간에 격파하였다. 이렇게 초전에 승기를 잡은 이순신 함대는 학의 날개 안에서 우왕좌왕하는 일본 함대를 일제히 각개 격파하여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안겼다. 한산해전은 화력집중의 원리를 구사한 대표적인 해전이다.

3. 주도권 확보의 원리 - 유리한 시간과 장소를 주도적으로 확보하라

주도권(主導權)은 전장의 상황을 아군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권한이다. 주도권 확보의 요체는 지금 싸우고 있는 이 해전의 장소와 시간을 누가 선택했느냐에 있다. 임진왜란 중의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해전인 한산해전, 명량해전, 노량해전에서 싸울 장소와 시간을 주도적으로 선택한 리더는 바로 이순신이었다.

조선 수군의 통합함대는 임진·정유왜란 기간 중 오직 한번 칠천량해전에서만 주도권을 빼앗겼는데, 그 결과는 조선 수군의 궤멸이라는 치명적 패배였다. 칠천량 해역은 조선 수군이 싸우고자 한 장소가 아니었다. 정유년(1597년) 7월 14일 아침 부산포로 출동한 조선 수군은 폭풍을 만나 해전다운 해전도 못해보고 저녁 무렵 가덕도로 후퇴하여 상륙하였는데 여기서 매복해 있던 일본군에게 400여명이 살해당했다. 7월 15일 조선 수군은 다시 함대를 수습하여 영등포를 거쳐 칠천량 앞 바다로 후퇴하여 정박하였다. 결과적으로 그곳은 일본의 지상군과 수군에 의해 포위된 일종의 함정과 같았다. 7월 16일 새벽 겹겹이 포위된 상태에서 야간 기습을 받았고 이 때부터 해전이 시작되었다. 함포포격전을 주요 전술로 구사하는 조선 수군에 대

한 일본 수군의 야간 기습은 치명적이었다. 결국 조선 수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궤멸되고 말았다. 해전의 장소와 시간에 대한 선택, 모두에서 일본 수군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데서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임진년(1592년) 제1차, 제2차 출동에서의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의 배치상황을 정확히 알고 해전에 임했던 반면에 일본 수군은 그렇게 못했으며 설상가상으로 해전을 위한 준비도 미흡했다. 당시 일본 수군은 지상전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만에 빠진 채 해안 곳곳에서 노략질에 여념이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조선수군과 해전을 벌여야 했다. 일본 수군은 철저히 피동(被動)의 국면에 처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잘 조직되고 통합된 조선 수군과의 해전에서 항상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전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했기 때문이었다.

제3차 출동 중에 벌어진 한산해전에서도 이순신은 해전장소를 주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한산해전에서 이순신은 유인술을 구사하였다. 그 이유는 조선 수군의 주력함인 판옥선이 활동하기에 편하고 나아가 전과(戰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역이 좁은 견내량 보다 넓은 한산도 앞바다가 유리한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한산도 해전을 앞 둔 이순신은 승리를 확신하였다. 이에 따라 평소 해전에서 불리할 경우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주하는 일본 수군의 행태를 보아 온 이순신은 육지로 도주할 수 없는 한산도 앞 넓은 바다를 해전 장소로 정하고 견내량에 있는 일본 수군 함대를 유인하였던 것이다. 한산도 앞 바다에는 조선 수군의 주력함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유인하던 5, 6척의 함선을 포함해 총 58척에 달하는 조선 수군 통합함대는 사전의 작전계획에 따라 학익진(鶴翼陣)을 펼쳐 일제히 총통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일본 함선 73척 가운데 59척을 격파하였다. 대승이요 완전한 승리였다.

불가사의한 해전으로 평가되는 명량해전에서도 이순신은 싸울 장소를 주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전라도 장흥의 회령포에서 12척을 수습한 이순신은 300여 척의 일본 수군의 추격을 피하며 이진, 어란포, 벽파정으로 후퇴하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다. 과연 어디서 싸워야 승산이 있을까? 명량해전이 있기 하루 전 이순신은 진도의 벽파정에서 해남의 우수영(右水營)으로 진(陣)을 옮겼다. 그 이유가 《난중일기》에 보인다.

“조수를 타고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진을 우수영 앞 바다로 옮겼다. 그것은 벽파정 뒤에 명량(鳴梁)이 있는데, 수효 적은 수군으로 명량을 등지고 진(陣)을 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으고 약속하되, 병법에 이르기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고, 살려고 피를 내고 싸우면 죽는다’하였고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모두 오늘 우리를 두고 이른 말이다.”(『亂中日記』, 丁酉年 9월 15일)

명량의 물목을 해전 장소로 택한 가장 큰 이유는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병법의 원리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 마디로 관운장(關雲長)나 장비(張飛)같은 힘센 장수가 외나무 다리를 지키고 있을 경우 수백 명이라도 당해낼 수 있다는 원리이다. 적군이 아무리 많더라도 외나무 다리를 타고 오는 자는 한 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300여척의 일본 수군 함대를 명량의 좁은 물목에 가두어 놓고 조선 수군은 13척 모두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물목 바깥의 넓은 해역에 위치하여 싸운다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순신은 명량의 좁은 물목을 해전의 장소로 선택함으로써 13대 300이라는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결과적으로 명량의 좁은 물목은 일본 수군에게는 가장 불리한 역으로 조선 수군에게는 가장 유리한 해전 장소였던 것이다.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에서도 싸울 장소를 먼저 선택한 쪽은 이순신의 조선 수군이였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대를 해상 봉쇄하고 있던 이순신은 사천·남해·부산 등지에 있던 일본 수군이 고니시 유키나가를 구원하기 위해 전면 출동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곧바로 봉쇄를 풀고 노량으로 함대를 이동하였다. 고니시 유키나가를 계속해서 봉쇄할 경우 앞뒤의 적에게 협공을 당하게 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마지막 해전 장소인 노량도 이순신이 선택한 장소였던 것이다.

4. 정보획득의 원리 - 정확한 정보 없이는 함부로 부대를 움직이지 마라

이순신의 모든 전략전술과 작전계획은 언제나 사전에 획득한 정확한 정보 분석을 토대로 수립되었다.

임진년(1592년) 최초의 해전인 옥포해전에서도 일본 함대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함대 선두에 배치되었던 우척후장 김완이었다. 이순신의 치밀한 정보 수집은 임진년 제1차 출동에서 벌어진 세 번의 해전을 모두 승리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해전이 벌어질 때마다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의 위치와 세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반면에 일본 수군은 남해 연안의 지리에 어두웠고, 탐망선도 거의 운용하지 않았다. 지상군의 승리에 도취하여 조선 수군의 존재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의 계사년(1593년)의 이순신의 장계는 이순신의 정보수집체계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신이 거느린 함선은 전선이 42척이고 정탐용 작은 배가 52척이며, 우수사 이억기가 거느린 함선은 전선이 54척이고 정탐용 작은 배가 54척이며, 전쟁기구는 배의 척수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李忠武公全書』, 請湖西舟師繼援狀)

이 기록을 토대로 계사년(1593년) 기준 전라좌·우수영의 함선세력을 정리해 보면 전투함이 96척이요, 정보를 수집하는 탐망선이 106척이다. 특히 일본군과의 접적지역에 있는 이순신의 전라좌수영에는 탐망선이 전투함보다 10척이나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계사년(1593년)부터 정유년(1597년)까지 한산도에 통제영을 둔 이순신은 일본군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탐망선 이외에 별도로 육상의 정찰부대를 운용하였다. 거제도의 안쪽 바다로 통하는 칠천량 앞 바다를 감시하는 영등(永登) 정찰부대와 거제도의 바깥 바다로 통하는 해로와 웅천 및 가덕도 앞 바다를 감시하는 대금산(大金山) 정찰부대 그리고 고성 쪽의 육지와 바다를 감시하는 벽방산(碧芳山) 정찰부대가 그것이다. 이 부대의 활약을 통해 이순신은 안골포, 가덕도, 제포, 웅포, 거제 등을 오가는 일본 수군과 고성 쪽의 일본 지상군의 동태를 소상히 파악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육로로 정찰 임무를 띤 군관을 직접 보내 거제 동쪽의 적의 동태를 살피기도 하였다.

널리 알려진 한산해전 또한 해전이 벌어지기 하루 전인 1592년 7월 6일 저녁, 현지인 김천손으로부터 ‘적의 대 중 조선 70여 척이 견내량에 머무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다. 그리고는 일본 함대를 모조리 격파할 작전계획을 수립한다. 조선 수군은 견내량에 정박해 있는 일본 수군의 존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 수군은 조선 수군이 바로 자신들의 턱 밑에서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13척 대 133척의 싸움이었던 명량해전에서도 이순신은 정보를 수집하는 탐망선 32척을 운

용하였다. 그리고는 사전에 입수된 정보의 분석을 통해 일본 함대가 조선 함대를 공격할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고, 명량해전 하루 전 벽파진에서 전라우수영으로 진을 옮기고 해전에 대비하였다. 과연 그 이튿날 아침 일본 함대는 명량을 통과하여 조선함대를 공격해 들어왔다. 해전 당일 일본 함대의 이런 움직임 또한 사전에 배치된 정찰부대에 의해 정확히 탐지되었다.

정확한 정보 없이는 함대를 움직이지 않았던 이순신은 정유년(1597년) 1월, 가토오 기요마사를 잡으러 출동하라는 임금 선조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기초하여 수군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 이순신의 입장이었다. 이는 전투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조정의 정보 획득 및 분석 능력에 대해 신뢰할 수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순신은 그 자신이 파직되어 투옥되고 임금을 능멸하였다는 죄로 죽임을 당할지언정 거짓 정보에 기초하여 부하 병사들을 죽을 곳으로 내어 모는 그러한 무모한 작전 명령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5. 지리(地利) 이용의 원리 - 지형의 이점을 십분 활용하라

『맹자』에 “천시(天時)는 지리(地利)만 못하고, 지리(地利)는 인화(人和)만 못하다(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라는 말이 있다. 의역하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전장에서의 시간적 조건은 공간적 조건만 못하고 공간적 조건은 인화단결만 못하다는 뜻이다. 지형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이 비록 인화단결보다는 못하다 하더라도 전쟁 승패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 내용이다.

이순신이 지형의 이점을 활용한 사례 가운데 제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1: 30의 열세 상황을 반전시켜 승리로 이끈 명량해전이다. 정유년(1597년) 7월 통제사 원균 지휘하의 조선 수군이 칠천량해전에서 대패하고 통제사 원균조차도 전사하게 되자 조정에서는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에 임명하였다. 8월 3일 진주의 굴동(屈洞)에서 통제사 임명 교지를 받은 이순신은 8월 17일 장흥에 도착하여 회령포(會寧浦)에서 전선 12척을 수습하고, 이진(梨津)을 거쳐 8월 24일 어란포(於蘭浦)에 도착하였다. 8월 27일 어란포에서 조선 수군은 칠천량해전 패배이후 처음으로 일본 수군의 공격을 받는다. 일본 수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이순신은 8월 29일 진도의 벽파진(碧波津)으로 함대를 이동시키고 그곳에서 9월 15일까지 해전을 준비하며 작전을 구상하였다. 9월 14일 육지로 정찰을 나갔다 돌아 온 탐망군관 임준영(任俊英)으로부터 “일본 함선 200여 척 가운데 55척이 벌써 어란포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은 이순신은 명량해전 하루 전인 9월 15일 진을 벽파진에서 전라우수영으로 옮겼다. 진을 옮긴 이순신은 장수들을 모아놓고 일장 훈시를 하였다.

“병법에 이르기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고, 살려고 꾀를 내고 싸우면 죽는다’하였고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 명이라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모두 오늘 우리를 두고 이른 말이다.”(『亂中日記』, 丁酉年 9월 15일)

이순신은 열세인 조선수군으로는 명량(鳴梁)을 등지고 진을 펼칠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명량의 좁은 물목을 등지고 싸울 경우 수효가 적은 조선수군조차도 전투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순신이 명량의 물목을 해전 장소로 택한 것은 우세한 일본 수군 함대를 좁은 물목에 가두어 놓고 열세한 조선 수군으로 하여금 명량 해협 입구에 포진시켜 기다리고 있다가 해협을 빠져 나오는 선두함선을 집중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 명량의 지형적 여건을 이용하여 절대적인 수적 열세를 만회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순신의 계산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일본 수군은 전체 300여 척의 함선 가운데, 협수로에서 기동이 원활하지 않은 대선인 아다케부네(安宅船)를 제외시키고, 판옥선보다도 작은 세키부네(關船) 133척을 주력 함선으로 편성하여 명량해전에 투입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일본 함선 133척은 조수를 타고 명량해협을 빠르게 통과하여 조선 수군 함선 13척을 공격하는 것으로 명량해전이 시작된다. 그리고 실제 전투 국면에서는 133척 가운데 31척이 조선 수군 함선 13척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양상으로 해전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볼 때 당초 이순신이 계획하였던 것처럼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 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병법의 원리가 정확히 구현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란포에 집결되어 있었던 일본 함선의 척수를 기준으로 보면 최초 13척 : 300척이라는 절대 열세 상황에서 명량의 좁은 물목은 13척: 133척으로 열세 상황을 완화해 주었으며, 실제 해전 국면에서는 다시 13척: 31척의 상황으로 열세 상황이 크게 축소되었다. 결국 이순신은 명량의 좁은 물목을 이용하여 1: 30의 열세 상황을, 1: 3으로까지 완화시키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임진년(1592년) 이후 해전 상황이 증명하듯이 1: 1의 경우 화력 면에서나 함선 성능 면에서 일본 함선은 조선의 주력함인 판옥선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비록 어려운 해전이었지만 조선 수군의 판옥선 13척은 에워싸고 있던 일본 함선 31척을 모조리 격파하였다. 명량해전은 조선의 판옥선 1척이 일본의 세키부네 3척 이상을 대적할 수 있는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순신은 명량해전을 제외한 모든 해전에서 좁은 협수로를 무대로 해전을 벌이지 않았다. 그러나 천하의 명장 이순신도 1: 30 이상의 절대열세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명량의 지형적 이점을 등에 업고 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6. 선승구전(先勝求戰)의 원리 - 이겨놓고 싸운다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뒤에 싸워서 항상 승리하지만,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우고 나서 요행으로 승리하기를 바란다. 이른바 전투는 이기게 되어 있는 싸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순신은 전투에 관한 한 완벽주의자였다. 그는 승리의 확신이 없는 해전은 결코 벌이지 않았다.

이순신은 거의 모든 해전에서 일본의 수군을 좁은 포구로부터 넓은 바깥 바다로 유인하여 격멸하는 함대결전(艦隊決戰)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였다. 좁은 포구에서 해전을 할 경우 형세가 불리함을 느낀 일본 수군이 육지로 상륙하여 도주하는 일이 종종 벌어졌기 때문이다. 넓은 바다로 유인하여 싸우는 해전전술은 승리에 대한 확신 없이는 사용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 대표적인 해전이 임진년(1592년) 제3차 출동 중에 벌어진 한산해전이다. 임진년 1, 2차 출동 때의 해전이 남해연안에서 노략질을 일삼던 일본 수군에 대한 기습공격이었다면, 3차 출동에서의 한산해전은 일본 정예 수군함대와 한판 승부였다. 이순신 함대는 전라좌·우수영과 경상우수영 소속의 전선 58척이 주력이었고, 일본 수군 함대는 판옥선과 크기가 비슷한 대선이 36척, 중선이 24척, 소선이 13척으로 총 73척이었다.

이순신은 한산해전 하루 전인 9월 6일 저녁 일본 수군 70여 척이 견내량에 정박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작전 계획을 구상하였다. 이순신은 한산해전에 임하면서도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다음의 인용문은 한산해전이 끝난 뒤 이순신이 조정에 보낸 장계의 일부이다.

“견내량은 지형이 매우 좁고, 또 암초가 많아서 판옥전선은 서로 부딪히게 되어 싸우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적은 만약 형세가 불리하게 되면 기습을 타고 육지로 올라갈 것이므로 한산도 바다 가운데로 유인하여 모조리 잡아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李忠武公全書』, 見乃梁

破倭兵狀)

이 장계를 보면 이순신의 고민이 단순히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과(戰果)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순신이 고민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견내량은 해역이 좁아 당시로서는 큰 배에 속하는 판옥선의 기동이 불편하여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둘째, 이전의 해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적들은 형세가 불리하게 되면 배를 버리고 곧장 육지로 도망할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은 제한점을 극복하고 전과(戰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산도 앞의 넓은 바다로 유인하여 격파해야 한다. 이순신의 구상은 밤새 계속되었다.

다음 날 아침, 사전에 수립된 작전계획에 따라 이순신은 판옥선 5, 6척을 견내량에 보내 공격을 시도하였다. 일종의 유인술(誘引術)이었는데, 적들은 일시에 돛을 달고 달려 나왔다. 조선의 함선 5, 6척이 뱃머리를 돌려 한산도 앞바다로 퇴각하자 일본 수군 함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다 한 가운데로 따라 나왔다. 거짓으로 퇴각하던 조선의 함선들은 한산도 앞 바다에 이르자 기다리고 있던 수군 본대와 합류하면서 뱃머리를 돌려 함께 학익진(鶴翼陣)을 펼쳤다. 조선 수군 함대는 선두에서 추격해 오는 일본 함선 2, 3척에 화력을 집중하여 깨뜨린 것을 시작으로 총공격을 감행하여 일본 함대의 대선 35척, 중선 17척, 소선 7척 등 도합 59척을 일시에 격파하였다. 일본 함대는 거의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다. 반면에 조선 수군은 단 1척의 함선 피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그리 많지 않았다. 한산해전의 전투결과는 조선 수군의 전투력이 일본 수군에 비해 월등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거기다 화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진형법인 학익진(鶴翼陣)의 운영 등 이순신의 주도면밀하고도 탁월한 병법의 구사는 조선 수군의 전투력을 극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이순신의 진정한 위대성은 열세한, 그래서 보통사람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극악한 상황에서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싸웠던 그의 탁월한 군사전문가적 역량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만전(萬全)의 원리 - 준비없는 승리는 없다

전라좌수사로 부임할 때 이순신의 나이는 47세였다. 전라좌수영은 낮은 곳이 아니었다. 이미 10여 년 전인 36세 때, 전라좌수영 관할 부대인 발포에서 대령급 지휘관인 수군 만호로 2년 가까이 근무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라좌수영은 이순신이 수사로 부임하기 4년 전인 1587년 왜구와 해전을 치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왜구와의 해전에 대한 실전 노하우가 축적된 부대였다. 이순신이 주력함선인 판옥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격선 용도로 거북선을 창제하게 된 것은 이런 개인적 이력과 전라좌수영의 역사가 그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임진왜란 발발 1년 2개월 전인 1591년 2월에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이순신은 어떤 전쟁 준비를 했을까. 일기를 적기 시작한 1592년 1월 1일부터 임진왜란이 발발하는 4월 13일까지의 일기를 살펴보면 그가 어떻게 전쟁준비를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순신은 임진년(1592년) 1월 11일 전라좌수영 항만 방어를 위해 쇠사슬 설치용 돌을 준비하였고, 1월 12일에는 전라좌수영 본영과 각 포구의 진무(鎭撫)(오늘날 부사관에 해당)들에게 활쏘기 시범을 보았다. 1월 16일에는 함선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죄를 물어 방답진의 함선 관리 책임자인 군관과 관리들에게 곤장을 때렸다. 2월 4일에는 전라좌수영 북쪽 산봉우리에 있는 봉화대를 점검하고, 2월 8일에는 거북선의 돛을 만드는 데 사용할 베 29필을 확보하였

으며, 같은 날 오후에는 군관들에게 활쏘기 시합을 시켰다. 2월 11일에는 새로 뽑은 군사들을 점고했으며, 2월 15일에는 새로 쌓은 해자(垓字) 구덩이가 무너져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 쌓게 했다. 그리고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9일 동안 전라좌수영 예하 부대에 대한 최종 전비태세 검열에 나서 전쟁 준비를 독려했다. 그리고 다시 여수 본영으로 돌아온 이순신은 마지막 전투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아침을 먹은 뒤에 나가 앉아 무기를 검열해 보니 활, 갑옷, 투구, 전통, 환도 등이 깨어지고 헐어서 불품없이 된 것이 많았으므로 색리(色吏)와 궁장(弓匠), 감고(監考)들을 처벌했다.”(임진년 3월 16일 일기) 4월 11일에는 거북선에 사용할 돛베를 만들었으며,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인 4월 12일에는 거북선에 천자, 지자총통을 싣고 나가 사격훈련을 모두 마쳤다. “식후에 배를 타고 거북선에서 지자, 현자총통을 쏘아 보았다.” 신에 돌격선 용도로 만든 거북선의 실전배치가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에 완료된 것이다. 적어도 이순신이 지휘하는 전라좌수군은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까지 어느 정도의 전투 준비 태세를 끝내 놓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것처럼 준비없는 승리는 결단코 없다는 것을 이순신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병법의 요체는 강한 자, 우세한 자가 약한 자, 열세한 자를 이긴다는 것이다. 일본 수군의 함선 척수는 조선 수군보다 10배 이상 많았지만 실제 전투 국면에서는 오히려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의 함선 척수가 월등히 많았다. 조선 수군은 통합되어 운영된 반면 일본 수군은 부산포부터 남해안 여러 포구에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해전이 벌어지면 이순신은 학익진처럼 포격을 집중할 수 있는 진형법을 사용하여 화력의 우세를 조성하였다. 명량해전처럼 13척 대 133척의 절대 열세 상황에서는 명량의 좁은 물목이라고 하는 지리적 잇점을 활용하여 최소한 전투가 벌어지는 국면만큼은 전투력 우세를 확보하였다. 이순신이 유능한 리더인 까닭은 열세한 상황에서 용전분투하여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인위적으로 우세한 상황을 조성해서 싸웠다는 데 있다.